

맘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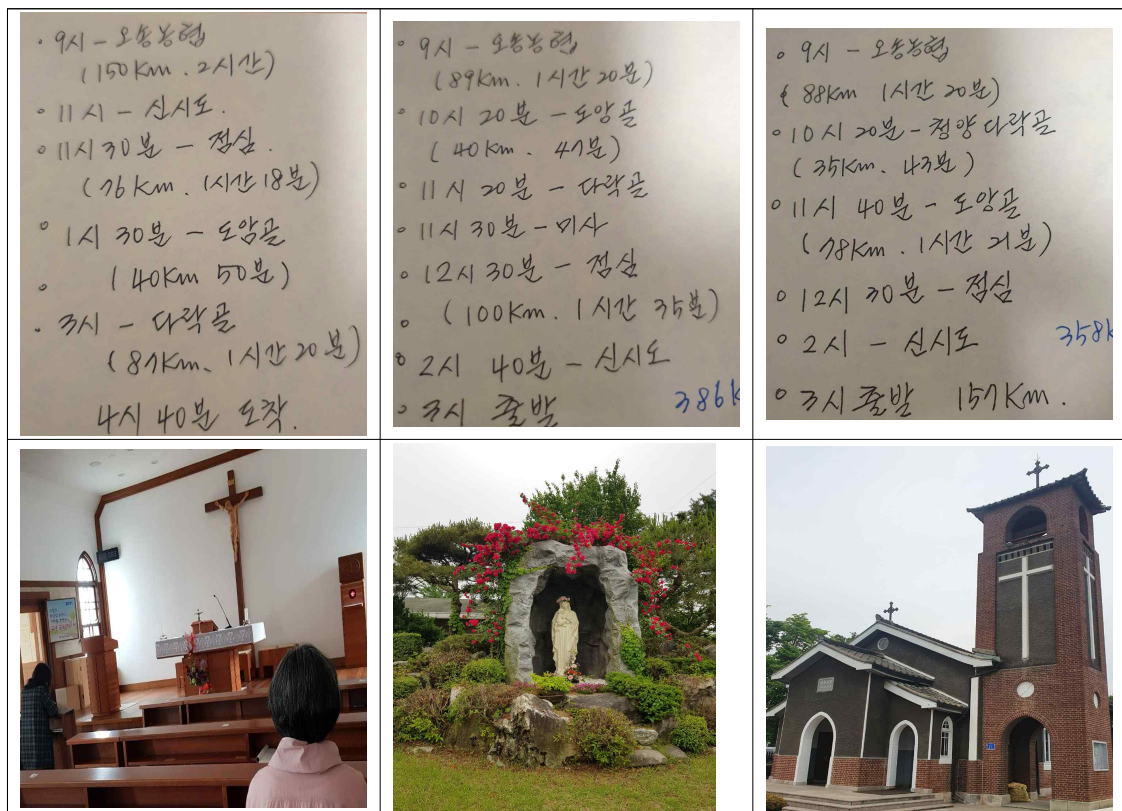
# 그 길을 따라 걷다

오송성당 백규림 크리스티나

■ 순례일: 2021.5.26. 수요일(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청양 다락골 새터 탄생지, 군산 신시도 체류지, 부여 도양골 교우촌

최양업 신부님의 길을 따라 걷는 성지순례를 결심하고, 두 번의 걸림돌을 넘고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다. 위의 세 곳을 첫 순례지로 정하자 운전은 맡은 자매가 이리저리 노선을 짜서 카톡으로 보내왔다. 미사가 있는 성지의 미사 시간을 중심으로 동선을 잡으려니 잘되지 않았다. 일단 오송 성당에 모여 성체조배 후, 최양업 사제 시복 시성 기도와 순례를 떠나면서 바치는 기도를 하고, 미사보다는 수월한 동선을 위주로 '도양골 교우촌'을 향해 출발했다.



도양골 교우촌은 최양업 신부님께서 1849년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사목 활동을 한 곳이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기 피었다는 데서 '도원곡'이 훗날 '도양골'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 성지는 대부분의 교우촌이 그러하듯 깊은 산속 고즈넉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10시 30분 경에 도착하여 조용한 암자와 같은 그곳에서 '탁덕 최양업 시성 기원비'와 지붕 위의 수풀 사이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닭의 형상'을 본다. "베드로의 닭인가?"하면서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문득,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우렁찬 소리처럼 교우촌의 신앙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구석구석 성지를 둘러보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사 봉헌이라도 할 양으로 문을 두드려 보았다. 잠시 후 인기척... 신부님이다!

마침 수녀님들께서 11시에 미사를 청하셔서 준비 중이니, 시간이 된다면 함께 해도 된다고 하신다.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는 최양업 신부님과 도양골 성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성지 조성 과정에서 처음 3천만원으로 조출하게 시작했지만, 교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시며, 현재 이곳은 사제와 수도자들의 기도와 휴식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교우들이 소규모 개인 피정을 하기도 한다고 하셨다. 미사를 집전해 주신 이범배 바오로 신부님께서도 이곳에서 휴식 중이신 것 같았다.

작은 방에서 7명이 함께한 미사에서 신부님께서는 조곤조곤 정성을 다해 우리의 청원을 올려 주셨고, 미사 후에는 감실에 모셔진 김대건 신부님의 오른팔 뼈조각으로 '유해 강복'을 일일이 주시며 축복해 주셨다. 우리 교구에서 온 다른 순례자팀을 뒤로하고 우리는 신부님의 환송을 받으며 은총이 충만해져서 군산 신시도 체류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군산 신시도 체류지 터는 새만금 33센터 북서쪽 바다라고 한다. 1947년 7월, 당시 최양업 부제는 조선에 귀국하기 위해 중국의 광주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군함에 올랐던 것이다. 프랑스군의 통역으로 조선 해안에 왔다가 배가 남파되어 한 달 동안 머문 장소가 여기였다고 한다. 결국 조선에 남고자 했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떠나야 했지만, 최양업 신부님은 서한에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우리는 자리를 이동하여 신시도 체류지 안내판이 있는 곳으로 갔다. 안내판에 의하면 프랑스 함대는 기해박해 때 조선 왕실에서 선교사 세 명을 참수한 것에 대한 항의 답신을 받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는 것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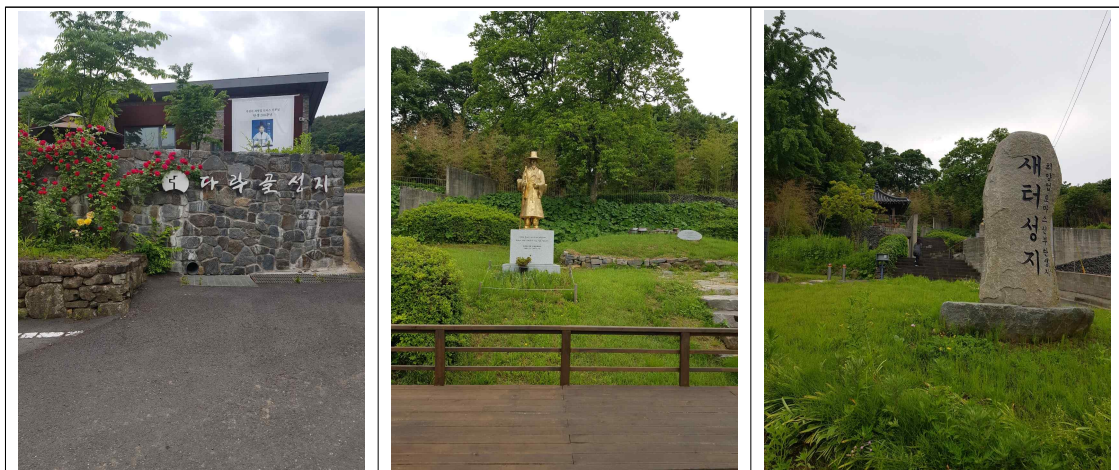
새만금 공사로 지금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바닷길을 가로질러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좌초되었을 그 당시에는 크고 작은 섬들로 뱃길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최양업 신부님의 고행길에 대해 묵상하며 청양 다락골로 향했다.





청양 다락골 새터는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지이다. 다락골은 최양업 신부님의 조부 최인주가 1791년 신해박해 후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 들어오게 된 곳이며, 1839년 기해박해로 순교한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가 최양업 신부님을 낳은 곳이다. 탄생터에서 신부님 동상을 보며, “어떻게 저 체구로 구만리 길을 다니시며 교우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하는 여담을 나누며, 부모의 신앙과 최양업 신부님의 굳건한 의지를 되새기고 돌아왔다.

늘 여행의 감동은 계획되지 않았던 뜬금없는 일들에서 증폭된다. 이번 성지순례 역시 그랬다. 돌아보니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일정을 잡았지만, 결국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순서로 순례길을 가게 되었고, 아쉽지만 포기하기로 했던 미사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기회를 얻었으며, 마음속에 품고 갔던 각자의 기도 청원도 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성체조배를 시작으로 기도하며 순례를 준비했기에 감사의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사랑이신 주님, 이후 4차에 걸쳐 순례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최양업 신부님을 닮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